

## 科學普及과 宗教選擇

[朝鮮農民] 제5권6호(총36호 1929년 10월)

農民을 속여먹는 幽靈輩를 退治함에는 農民自體의 覺醒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急務라도 생각합니다. 農民自體의 覺醒을 일으킴에는 먼저 簡易한 科學的 知識을 普及케 하여서 一般 農民이 事物에 對할 때에 科學的 頭腦를 가지고 對하도록 되게 하는 것이 農民을 속여먹는 幽靈輩를 退治하는 積極策인 同時에 農村에 橫行하면서 現下의 農民이 不安한 가운데 있음을 利用하여 함부로 農民을 속여먹는 幽靈輩를 社會的으로 攻擊하여 現社會에서는 擡頭치 못하게 하는 것은 消極策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現下의 朝鮮農民은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依支한 곳 없이 가장 不安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不安한 가운데에서는 依支하고 慰安을 얻기 위하여 宗教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弱點을 利用하여 幽靈輩들은 農村에 橫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農村에 宗教를 選擇하여 卽 世界的으로 公認되는 宗教를 紹介하는 것이 農民을 속여먹는 幽靈輩를 退治함에 對하여 輔助手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